



이화 의학교육 소식지

Ewha Medical Education Newsletter

이화의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이화의대 교육목표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의학교육 참여 우수 교수

2022학년도 OSCE Best Tutor "신경과학교실 윤지영 교수" 수상



▲ 신경과학교실 윤지영 교수

우리대의대(학장 하은희)는 지난 8월 25일 (목) 전체 교수회의에서 2022학년도 OSCE Best Tutor를 시상하였다. 수상에는 신경과학교실 윤지영 교수가 선정되었다. OSCE Best Tutor는 의과대학의 임상실습 교육에 참여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결정되는 매우 의미 있는 상이다. 이번 OSCE Best Tutor는 6월 진행된 임상종합평가의 학생 피드백 중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Best Tutor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집계되었으며, 의학과 4학년 학생 전원이 참여하였다. 이화의대는 의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학교육 참여 우수 교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OSCE Best Tutor 수상 소감

신경과학교실 윤지영 교수

과거 방문 앞에 붙은 문제를 보며 조마조마 했던 그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실수할 때는 내가 실수하는 것 같아 함께 안타까웠고, 예상보다 능숙하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같은 시간, 비슷한 감정변화를 거쳤을 선배라 더 감정이입이 되었나 봅니다. 베스트 튜터상은 제가 뭔가 역할을 했다고보다는 학생들이 조마조마한 제 마음을 눈치채고 주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더라도 곧 능숙하게 실력을 갖춘 여러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하게 동동거렸지만 몇 년 지나 동료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이나 강화된 생리적 진전(enhanced physiologic tremor)이 있어 실습 시중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목격했습니다. 시험 중이라 이야기는 못했지만 증상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신경과 이상운동질환파트 진료실을 꼭 찾아주세요!

'2022학년도 문항출제 워크숍' 개최

문항출제 실습과 피드백을 통한 시험문항 내실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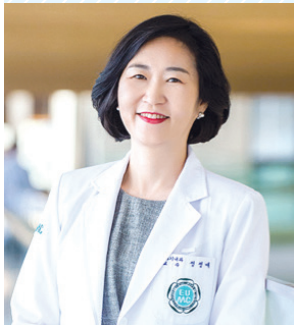


▲지난 6월 28일 의학관(마곡)에서 「2022학년도 문항출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우리대학은 지난 6월 28일 의학관(마곡)에서 「2022학년도 문항출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화의학교육센터가 교수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의사국가고시의 최신경향을 토의하고 문항개발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하였으며 17시부터 21시까지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의과대학 시험문제 출제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워크숍에 내과,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에서 35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워크숍 진행은 ▲의사 국가고시 현황(이혜진 임상교무부장), ▲의사 국가고시 문항출제(권형주 임상교무부 차장), ▲문항출제 실습(Dry lab), ▲조별 문항 검토(PBL룸), ▲전체 발표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개인별 실습시간과 조별 토론시간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참석 교수자가 워크숍 중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진 임상교무부장, 권형주 임상교무부 차장, 편욱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이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편안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 교수들과 문항 검토 교수들 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한 교수들은 "평소 문제 출제 시 잘 몰랐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문제 출제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내용이 인상 깊었다", "직접 출제한 문제들을 함께 피드백 하는 시간이 유익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학교육 내실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워크숍 참여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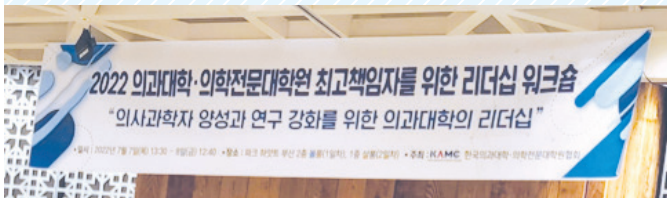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KAMC 최고책임자 리더십 워크숍을 다녀와서



교무부학장 정성애

7월 7일~8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하는 행사라 여름 해운대 바다도 보고 싶고 올해는 하은희 학장님과 편육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님이 함께 가게 되어 “으쌔으쌔”의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햇살에 빛나는 파란 바다가 시원하게 눈을 정화시켜주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의과학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 다. 첫째 날에는 의과학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한화철 전 KAMC 이사장님이 의과학자의 양성이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제를 강조하였고, 인재의대 이종태교수님은 의과학자 양성 현황과 도전 과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외국의 의과학자 양성 현황과 한국의 부족한 실태에 대해 지적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한 의과학자 양성 모델을 제시하고 의과학자 정책수립을 위한 정부와 의학계의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함을 피력하였고, 이어 보건복지부 부윤정 사무관이 정부의 의과학자 전주기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하였습니다. 바이흐로 의과학자 및 융합의과학자 양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 다. 둘째 날에는 각 대학별 연구력 강화를 위한 사례와 실제 의과학자로 키워진 젊은 의과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대학별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리더십 과정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과학자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들이 실제 충분히 존중 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은 남아있고 제대로 된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과 의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정부와 협력할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우리 이화의학교육센터가 매우 시의 적절하게 설립되어 의과학자양성을 준비하고 전생애 주기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도하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의학교육센터에서는 워크숍 후 곧바로 7월28일 의학교육센터 세미나에 워크숍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연구수업에 참여중인 학생들과 정성철 연구부원장님, 공경애 R&D정책위원을 모시고 우리학교 연구관련 수업들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이화 의대의 의과학자 모형이 탄생하리라 기대합니다. 이화의학교육센터 화이팅입니다!



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와서

이화의학교육센터 연구원 고아라

KAMC에서 7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처음으로 행정업무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의과대학 행정팀은 다양한 학교만큼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의과대학 행정가들이 모인 이유는 결국,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고민의 발걸음이었다. 우리가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는 가장 거대한 교육의 산실에서 교육의 핵심 구성원인 교수자와 학생을 연결해야하는 중추적인 교량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업무의 질과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할까? 실제 KAIST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 성실성과 소통능력등 순서로 10가지 항목정도가 나열되었다. 막상 개선하고 나아가기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열거하다보면 팔방미인도 모자라는 느낌이다. 다행히 어느 의과대학의 누구도 위 역량을 모두 갖춘 단 한 사람의 위인을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 대학이 자주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더 나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자 담당하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key역량을 파악하고 이러한 역량들이 모여 다 함께 가야한다. 여러 역량 지점들을 각자의 강점으로 버무려 나가다보면 하나의 선과 면으로 완성도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끝으로 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능력과 역량의 발전과 같은 시야를 갖고 넓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감사했다.

보다 교육적인 평가를 위한 고민의 시작

이화의학교육센터 특임교수 정소미

의학교육에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평가는 목표로 한 성과를 학생들이 성취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이자,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이번 MERCI (Medical Education Research, Counseling and Implementation) ‘학생평가의 주요 준거설정방법’ 워크숍은 보다 교육적인 평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준거설정방법과 절차’와 구체적인 준거설정방법(Angoff, Ebel, Hofstee 등)에 대한 실습을 다루었는데, 실제적인 예시는 우리 교육에 적용해보고 싶을 정도로 흥미로웠다. 이론과 실습 만큼이나 흥미로웠던 점은 워크숍의 참여자들이었다. 서울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동국의대, 울산의대, 경희의대, 건양의대, 계명의대 등 전국의 의과대학에서 참여하셔서 각 의과대학이 평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대 또한 성과 기반 평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교수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육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화의학교육센터에서 준비해나갈 것이다.



교육과정 소식

「의료혁신과 여성벤처 I」 신설



의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안소현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본인의 전문 분야와 AI 기술을 융합한 의사 창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명 벤처 투자사들은 창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 시절부터 체계적인 창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우리 의과대에서도 2022년 2학기 전공선택과목으로 〈의료혁신과 여성벤처 I〉 과목을 신설하였다. ‘의료창업’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의학적 기초 지식을 갖춘 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업은 혁신적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기업이 정신, 비즈니스 모델 구성, 팀 빌딩, 투자유치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시간과 창업 교수님들의 멘토링 특강 시간으로 구성된다. 미래의 여성 의사 과학자를 꿈꾸는 많은 의과대 학생들에게 창업교육-멘토링-모의창업-실전창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업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수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융합형 의과학자’를모델을 꿈꾸며



해부학교실 박소현

▲ 8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기초의학 전공을 생각하게 된 것은 본과 1학년 때부터였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는 본과 1학년 1학기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나이가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기초의학으로의 진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후 학부를 졸업하고 인턴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가장 나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러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후 대학원 입학 준비하면서 지도교수님께서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사업에 대하여 알려주셨는데, 관심이 생겨 의과학자 진로콘서트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운이 좋게도 올해부터 석사·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부터 지원할 수 있어 아직 새내기 대학원생이지만 용감하게 지원하였고 선정이 되었다.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사업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이끌어 나갈 융합형 의과학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학부 의과학자 양성 지원 · 전공의 연구지원이 이에 포함된다.

의사 국가고시 응원 메시지

“의사국시, 이대 의대는 전원 합격이라고 전해라”



이화의학교육센터 부센터장 태정현

이제 코앞에 다가온 의사 국가 고시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모두 한 분 씩 어깨를 두드리고 안아주며 ‘잘 하고 있다’는 응원의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대 의대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노력과 수고들, 정말 잘 했다는 칭찬과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체득해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습득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다면, 지금의 시험 준비가 고되고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들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서, 동료 의사로 거듭난다는 점은 참으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멋진 의사 생활을 위해 응원하며 그 동안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아낌없이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화의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여러분의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외쳐 봅니다. “의사국시, 이대 의대는 전원 합격이라고 전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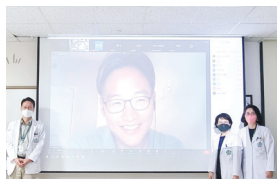
다. 그중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은 의사 면허증을 취득 후 전일제 박사 학위 과정을 진행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공의 수련과목과 같은 대학원 전공과목 선택 시 참여할 수 없다. 특히 사업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임상 지식과 기초의학 · 공학 · 바이오메디컬 등 타 학문과 연계된 연구를 계획해야 했다. 나의 경우 기초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연구를 계획했다. 평소에도 3D · 가상현실 등에 관심이 많았고, 과거 해부학을 공부할 때 3D 인체 프로그램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직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아쉬움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근육의 부착 부위나 움직임 구현이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교과서와도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해부학 전공자로서 카테바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한다면 더 인체와 유사한 모델이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아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특히 이 연구의 흥미로운 점은, 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인체 모델은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공학에서 구현하는 것이므로, 공학에서 꼭 필요한 해부학 데이터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낯선 공학 문헌을 읽느라 꽤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나이가 연구를 통해 얻은 카테바 데이터를 실제 인체 근육을 구현하는 공학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비교할 계획이다. 이화여자대학교 기초전공자 중 첫 사례라, 선례가 없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앞으로 겪을 계획이다. 아직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지만,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기초전공의를 보지 못하여 기초의학으로 진로를 아예 생각해보지 못한 학생도 많을 것이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장차 학생들에게 기초의학의 꿈을 꾸게 할 롤모델이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의학교육 세미나

의학교육 세미나는 의학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우리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함께 고찰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제2차 | 의학교육에서 메타버스 활용 사례

일시: 6월 30일(목) 장소: 의학관(마곡) 301호



제2차 세미나에서는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최형진 교수가 △ 가상현실 교육의 장점, △ 가상현실 기술 교육 사례, △ 해부학 실습 적용 사례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우리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인 권복규 교수와 해부학교실 한승호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의하였다. 제2차 세미나에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하여 의과대학, 서울병원, 목동병원을 연결하여 진행되었으며, 하은희 의과대학장, 정성애 교무부학장을 비롯하여 33명의 교내 구성원이 참석하였다. 특히, 제2차 세미나는 기존 교수 중심의 의학 교육 세미나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차 | 의과대학의 의사과학자 양성

일시: 7월 28일(목) 장소: 의학관(마곡) 105호



제3차 세미나의 주요내용은 △ KAMC 최고책임자를 위한 리더십 워크숍 주요내용 요약(편육범 이화의학교육센터 센터장), △ 우리의대 기본의학교육에서 연구 역량 강화 교육 현황(정소미 이화의학교육센터 특임교수)이었으며, 하은희 학장, 정성철 연구부학장, 공경애 학생연구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의학과 4학년 서채원, 의학과 3학년 김세은, 최새솔 학생이 패널로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의하였다. 제3차 세미나는 재학 중 연구 및 논문 발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실제적인 경험과 요구를 논의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패널 토의를 통해 학생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 참여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고려사항 그리고 새로운 MD-Ph.D 양성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4차 |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중심으로

일시: 8월 25일(목) 장소: 의학관(마곡) 301호



제4차 세미나의 주요내용은 △ '2022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 지원 계획(정소미 이화의학교육센터 특임교수)이었으며, 권복규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황지영 자체평가위원회 간사, 공경애 교무차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의하였다. 제4차 세미나는 2020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6년 인증을 획득한 후 올해 실시된 자체평가 중 교육과 관련된 영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교육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미나에 50여명의 교수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패널 토의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 교육 활동 기록의 중요성, 졸업코호트 구축 그리고 다음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비하기 위한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다루었다.

'성과 기반 교육계획서 작성 워크숍' 개최

성과 기반 교육과정의 이해와

성과 기반 교육계획서 설계 실습의 자리 마련

우리의대(학장 하은희)는 '성과 기반 교육계획서 작성 워크숍'을 지난 8월 18일 의학과(마곡) Dry Lab에서 이화의학교육센터 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교수자의 성과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성과 기반 교육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성과 기반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학과 2학년 2학기 운영 과정을 대상으로 성과 기반 교육계획서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의학과 2학년 전체과정 중 '알레르기 및 류마티스', '임상입문과정 IV', '혈액 및 종양', '중상학', '외과적 접근의 기본 원리' 등 7개 과정이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성과 기반 교육과정의 이해, ▲신규 개발된 성과 기반 교육계획서 안내, ▲성과 기반 교육계획서 작성 안내, ▲성과 기반 교육계획서 작성 실습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7개 과정의 성과 기반 교육계획서는 이번 학기 동안 수정·보완을 거쳐 학생들에게 기존의 교육계획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이화의학교육센터에서 과정별로 작성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외 의학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일정

교내

날짜	주최/주관	워크숍 및 세미나	날짜 및 장소
08. 17(목)	이화의학교육센터	2022학년도 성과 기반 교육계획서 작성 워크숍	의학관(마곡) Dry Lab
09. 26(월)	이화의학교육센터/TBL위원회	2022 TBL 워크숍	의학관(마곡) 301호
08. 25(목)	이화의학교육센터/의학교육학교실	제4차 의학교육 세미나	
09. 29(목)		제5차 의학교육 세미나	
10. 27(목)		제6차 의학교육 세미나	
11. 24(목)		제7차 의학교육 세미나	
12. 29(목)		제8차 의학교육 세미나	

교외

날짜	주최/주관	워크숍 및 세미나	날짜 및 장소
09. 23(금)	한국의학교육학회	의학 전문직 교육을 위한 의료 정책과 법	장소 미정
10. 13(목)		상담 및 멘토링 기술	
11. 17(목)		질적 연구의 개념과 방법 : 내용 분석과 주제 분석	
09. 15(목)	의학교육연구원	제9차 교수법 워크숍 시리즈 : 모듈 2. TBL의 이해	서울의대 의학교육연구원
09. 15(목)		제9차 교수법 워크숍 시리즈 : 모듈 3. TBL 문항 개발	온라인
09. 24(토)		제9차 교수법 워크숍 시리즈 : 모듈 4. google을 활용한 교수학습전략	
10. 06(목) ~ 07(금)		제8차 리더십 워크숍 II - 조직관리와 변화관리	
10. 28(금)		제2차 Health Science 워크숍	
11. 04(금)		제8차 교육프로그램 평가 워크숍	서울의대 의학교육연구원
12. 01(목) ~ 02(금)		제136차 전국 의대 신입교수 워크숍	온라인
12. 14(수) ~ 15(목)		제137차 전국 의대 신입교수 워크숍	

※ 소식지에 게재할 의과대학 가족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A4용지 ½매 내외이며 angelica66@ewha.ac.kr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